

# MARC은 죽었는가?



심 경  
정보학박사  
한국도서관협회 평생회원  
(주)아이리스넷 대표  
shim@irisnet.co.kr

가끔 내가 이 공간에 쓰는 글의 장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 학술논문은 물론 아니다. 애초부터 그건 추구하지도 않았기에 쉽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글을 뭐라고 부를까 하고 스스로 물으면 항상 막혔다. 단순히 독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개념이나 사실을 쉽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고, 이를 확인하고 싶어 강의 나가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가끔 물어서 그들의 반응을 듣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지도교수였던 랭카스터(F.W. Lancaster) 교수<sup>1)</sup>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만 강했다. 오늘 신문을 보다가 문득 내가 쓰는 글은 에세이라는 생각을 했다. 비록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독자가 실무자이므로 에세이 형식을 빌리고 싶었고, 이 글은 그렇다는 생각이다. 사실 미국은 『Library Journal』이나 『American Libraries』 등에 실무자를 위한 글들이 많이 실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판기관이 기관평가 등의 이유로 도서관에 관련된 거의 모든 출판물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표방하고 있어 실제로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논하기 위한 공간이 넓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이유로 올해도 나는 『도서관문화』를 통해 이것만은 우리 실무자들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1) 랭커스터 교수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문헌정보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SLIS)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하였으며, 정보검색과 도서관서비스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책과 논문을 쉽게 쓴 것으로 유명하다.

MARC 포맷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MARC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사오 십대의 사서들은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했다라도 MARC의 구조와 기능, 그 의미 등에 대하여 직접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들이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면서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접하고, MARC 포맷, 즉 한국에서는 KORMARC 포맷으로 서지레코드를 생성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그보다 젊은 세대의 사서들은 대학의 교과과정 내에서 MARC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과정에서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를 MARC 포맷에 대하여 배우는 것과 같은 깊이의 지식은 갖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MARC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웹이 확산되고 메타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는 종종 “쉽고 간단하고 편리한”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왜 그 “복잡한” MARC에 연연해야 하는가를 비판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MARC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자문하면, “글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부터 다시 짚어보면서 독자들이 소문이나 느낌이 아니라 각자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MARC포맷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 진가를 음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10 여 년 전 더블린 코어와 각종 메타데이터 포맷이 등장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MARC 포맷에 대하여 “문제있다,” “이제 바꾸자”라는 글들이 제법 등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MARC포맷이 그렇게 쓸모 없거나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아니며, 전세계의 MARC레코드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다 융통성 있는” XML 이나 다른 형태로 금방 바꿀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sup>2)</sup>. 일단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어떤 주장을 하기보다 실무자들을 위하여 MARC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한 카렌 코일(Karen Coyle)의 “Is MARC dead?”라는 글을 번역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MARC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무엇이며 그들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다소 기술적인 사안을 다루도록 한다.

코일의 글을 인용하거나 요약하기 보다 번역을 한 이유는 저자의 주장과 전개방식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고, 얼핏 쉽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역보다는 의역을 택하였다. 아래 내용은 코일이 2000년 7월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열린 한 패널에서 발표한 것을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수록한 것으로서, 필자가 이전에 번역 허락을 얻어 놓은 바 있다.

2) 예를 들어, 미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나오는 MARC2XML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기반 MARC을 XML 기반으로 바꾸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렇게 변형된 데이터를 취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기하학적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 MARC은 죽었는가?(Is MARC dead?)<sup>3)</sup>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MARC 포맷의 비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한 흐름을 발견하고자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토론과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어떤 흐름보다 폭 넓은 불만들을 발견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MARC는 좋은 데이터베이스 포맷이 아니다
- 융통성이 부족하다
- 디스플레이에 적합하지 않다

아래와 같은 말도 들었다:

-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 너무 단순하다

이 밖의 불만들은 우리가 레코드를 가지고 하는 일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인명의 성은 그 자체의 서브필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다른 이는 전집을 MARC포맷의 주기필드 한 곳에 기록하게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sup>4)</sup>.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우리의 문제가 MARC포맷이라는 컨테이너(container)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MARC에 입력되는 그 내용(contents)에 관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말이 레코드에 관한 것인지 시스템에 관련된 것인지 역시 구분이 안 된다. 솔직히 나는 그런 인지된 문제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

3) Coyle, K. (2000). Is MARC dead? Retrieved May 2, 2006, from <http://www.kcoyle.net/marcdead.html>

4) 역자주: 예를 들면, MARC 포맷의 505 내용주기(formatted contents note)에 전집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결손 가정처럼 나는 우리가 문제 자체에 관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주변적 사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나는 우리가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 처방책을 논하고 우리를 불만스럽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살펴보려고 한다.

## 비주류 (Out of the Mainstream)

이렇게 잡다한 불만 가운데 내가 도출한 첫 번째 기본적 문제는 MARC는 주류에 속하는 포맷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 MARC는 도서관에 제한적이며, 오직 도서관만을 위한 포맷이다. 다시 말하여 인터넷 탐색기(Internet Explorer)는 결코 “display MARC” 플러그 인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향후 “MARC 반입” 마법사(wizard)를 가진 표준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구매할 확률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선구자(early adopter)에게 내린 저주를 겪는 셈인데, 이는 MARC 포맷이 개발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월드 와이드 웹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MARC 포맷이 개발될 당시 근대 전산은 여전히 낙후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은 대부분의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으며, 그 장점은 바로 대규모의 고도로 코드화되고 표준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품질의 아주 훌륭하게 코드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내용은 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레코드 포맷으로 얼마든지 변환될 수 있다. 나는 MARC 포맷으로 구축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서지 데이터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어서 표준에 기반하여 코드화된 레코드의 중요성을 안다. MARC가 아닌 레코드를 다룰 때 우리는 5% 가량의 시간을 대상 레코드 포맷을 이해하고, 그 포맷을 우리 구조로 변환하는데 소비하며, 나머지 95%의 노력은 내용<sup>5)</sup>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용이란 목록규칙을 사용하여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크게 변해왔으며, 이렇다 할만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레코드의 내용을 말한다<sup>6)</sup>.

우리가 가진 내용이 훌륭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레코드 포맷이나 시스템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내용이 표준에 근거하지 않고, 내용의 코딩이 불규칙

5) 역자주: 서지레코드에 포함되는 서지사항들을 의미한다.

6) 역자주: 실제 타 포맷의 레코드를 MARC로 변환할 때 포맷보다는 포맷에 담겨져 있는 서지사항, 즉 내용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며, 이런 보완이 필요없는 고품질 데이터가 MARC 레코드라는 의미이다. 국내에서 종종 MARC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자동화시스템들이 “MARC 반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서들은 그러면 MARC 레코드가 되는 줄로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MARC “포맷”을 가질 수 있지만, MARC “레코드”를 가질 수는 없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MARC 레코드를 위하여 반출된 레코드를 하나씩 열어 그 내용을 보완해야만 한다.

하다면, 어떤 레코드 포맷을 사용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분야에서는 내용이 전부이며,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

### 융통성 (Flexibility)

MARC 포맷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맷에 융통성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MARC가 좋은 것이다. 우리는 MARC의 기원이 목록카드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MARC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MARC는 레코드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서지기술(書誌記述)의 기계가독형 용기(holder)로 개발되었다. 출력물이 인쇄된 목록카드이건 다운로드 가능한 레코드이건, MARC의 목적은 도서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공통적으로 소장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MARC 레코드는 어떤 도서관이 그 자료를 소장했는가와 무관하게 해당 자료 자체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포함한다.

이처럼 MARC포맷이 서지레코드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성은 오늘날 우리 도서관의 생활방식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 도서관은 이제 입수하는 통상적인 자료<sup>7)</sup>를 각자 목록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공동편목(shared cataloging)의 이용은 우리가 다른 서비스나 전통적 형태가 아닌 정보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무엇이라도 MARC 레코드의 공유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오늘날 도서관의 전체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며, 우리 사서들은 레코드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화로부터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두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56 필드

856 필드는 제안될 당시에는 좋은 생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856 필드에 있는 정보는 서지기술의 일부가 아니며, MARC 레코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동일한 수명과 안정성도 갖지 못한다. 856 필드가 제안된 초기에는 웹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었고, 이는 전자게시판시스템에 다이얼 업을 위한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서브필드를 기록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어쨌든 오늘날 856 필드는 MARC레코드의 다른 필드처럼 모든 도서관이 공유 가능한 필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 도서관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자

7) 통상적인 자료(regularly published item): 저자와의 교신을 통하여 '적절히 표현할 용어가 없어 고민하다 사용한 것으로서 자신은 도서관이 입수하는 정상적인("normal") 간행자료를 의미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다음 문장의 "전통적 형태가 아닌 정보(non-traditional type of information)"과(와) 대비를 이루는 표현이다.

원의 접속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프록시 서버를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용자 또는 도서관을 벤더에게 식별시키는 URL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8)</sup>.

도서관 시스템 개발자들은 이런 URL이 아주 유동적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MARC 레코드에 내재하는 URL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서비스들을 개발하였다. 나는 SFX 기술, Jake<sup>9)</sup>, 그리고 우리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행한 작업을 의미한다. 서지레코드에서 URL을 분리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아주 좋은 해결책이다.

### • 다양한 버전(Multiple Version)

몇 년 전 여기 참석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버전”이라 불리는 개념을 논하느라 이와 유사한 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당시 생각은 책자, 마이크로물 형태와 온라인 자료 같이 한 저작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 있을 경우, 그 저작에 대하여 단 하나의 서지레코드를 구축하고, 그 서지레코드에 작은 “버전” 레코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버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그것을 MARC 레코드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시점에 이르기에도 훨씬 전에 와해되었다. 우리가 다양한 버전의 레코드가 개별 도서관의 입장을 표현하며, 따라서 그건 공유할 수 있는 서지레코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같은 논의를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서지정보 공유가 도서관에 가지는 중요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MARC 레코드의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MARC 포맷은 서지기술의 컨테이너이며, 또한 그 기능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함으로써 가능하다.

## 도서관 시스템 (Library Systems)

사람들이 MARC 레코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8) 이는 벤더의 URL이 도서관마다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전자저널을 교내(校內)가 아닌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인증절차를 거치므로 이용자는 일단 인증서버에 접속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 856에 입력되는 URL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료의 미러 사이트가 운영될 수도 있으며, 또한 동일한 자료도 벤더가 다르면 그 URL도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9) 역자주: Jointly Administered Knowledge Environment의 두문자어이며, Jake는 오픈소스 틀이며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거나 무료로 접근하는 전자자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데 이용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이 찾는 저널 또는 논문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구매대상 데이터베이스 평가를 위하여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의 저널을 포함하는가 등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 밖에 수록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사색인정보까지 제공한다. 좀더 상세한 사항을 위하여 <http://www.bowdoin.edu/~samato/IRA/reviews/issues/mar00/jake.html>를 참조하라.

문제점이다. 특히, 융통성 부족에 관한 대부분의 불만은 서지기술에 있어 향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시스템 안에서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합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단일 시스템 옵션만을 가졌지만, 도서관 전산화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일은 많은 상황에 처해있다. “내가 망치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가진 게 도서관 시스템뿐이라 모든 게 MARC 레코드에 입력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예는 MARC21의 커뮤니티 정보(Community Information) 포맷의 개발이다. 이것이야말로 도서관 사서들의 창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MARC 서지레코드만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서들은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정보를 위와 같은 레코드에 입력할 방법을 만들어내고, 검색이 가능한 커뮤니티 정보 파일을 생성했다. 이는 하나의 클러지<sup>10)</sup>이며, 아주 영리한 클러지이다. 오늘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클러지를 받아들이고, 표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필요성이 오늘날 처음 대두되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기 보다는 그 해결책으로 우리는 아마도 도서관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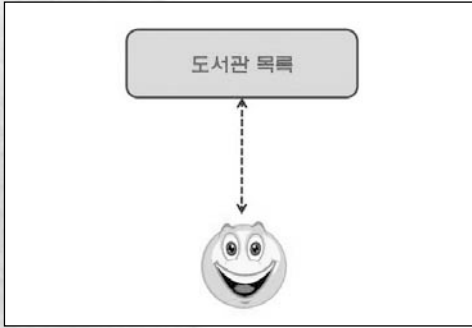
유감스럽게도 커뮤니티 정보 포맷의 성공이 우리 사서들로 하여금 모든 데이터 처리 필요성은 MARC 레코드를 사용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게 했을지도 모른다. 분류(Classification)포맷은 아마도 다른 데이터 구조를 사용했어야만 하는 데이터의 예이나, 우리 사서들은 MARC 이외의 어느 것도 고려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레코드 포맷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다.

### 문제는 시스템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이!(It's the System, Stupid!)

우리가 MARC 포맷의 “현대화(modernize)”에 대한 필요성을 논할 때, 나는 우리가 실제로는 도서관 시스템 현대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상호작용 하지 않는 닫히고 폐쇄적인 도서관 시스템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아직도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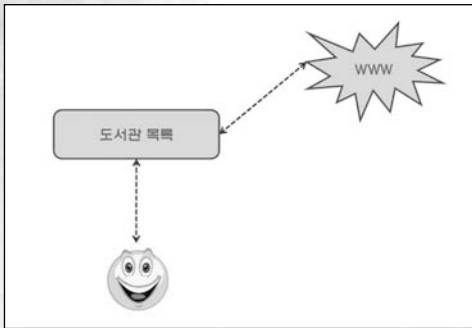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진화단계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몇 개 있다. 여러분은 이 슬라이드에서 통상적인 자료의 공유 가능한 서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MARC의 영역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MARC 포맷이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0) 역자주: 클러지(kludge)는 사전적 의미로 ‘클러지 (조화롭지 못한 구성요소로 된 컴퓨터 장치)’라는 컴퓨터 용어이다.



[슬라이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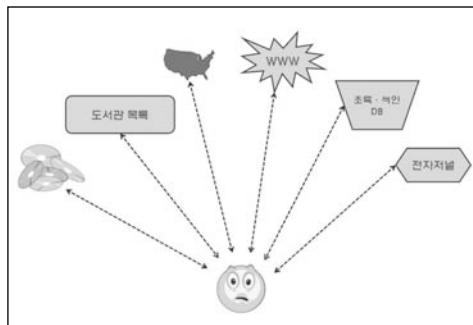
[슬라이드 1]은 바로 우리가 시작한 곳이며, MARC 레코드가 최초로 사용될 당시 우리의 위치였다. 당시의 도서관들은 벽을 가지고 있었고 목록은 하나의 굳게 닫힌 상자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은 행복해 하는 것을 주지하라.



[슬라이드 2]

웹을 사용할 초기, 우리는 네트워크 상의 자원들에 대한 연계를 온라인 목록에서 제공하였다. 문제는 웹이 엄청나게 커지고, 목록이라는 좁은 문을 통하여 웹이라는 세계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해 진 것이다. 더구나 이용자들은 우리를 압박한다: 이용자들은 어디 웹이 있고, 웹에 접근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반드시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모델은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슬라이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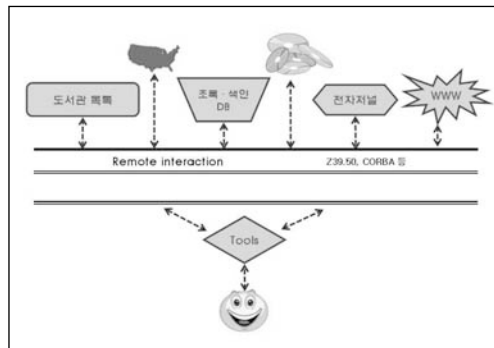




도서관 목록 외부에도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우리 중 일부는 이용자에게 많은 다른 정보자원을 선사하면서 이 모델로 옮겨왔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용자가 이전 모델에서보다 덜 행복해지는 것을 주목하라. 이 모델은 복잡하고,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오는,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델에서 도서관 목록은 정보발견을 위한 수많은 도구들 가운데 겨우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아직도 도서관 목록은 국가 MARC 레코드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커뮤니티, 벤더의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 사회과학 데이터, 이미지 자원과 같이 다른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자원이 MARC 포맷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 각 종류의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데이터 자원을 단일 시스템 안에서 검색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 슬라이드는 미래의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나의 비전을 보여준다.

[슬라이드 4]



[슬라이드 4]의 그림은 이 모든 자원들을 하나의 복합적 시스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위 그림의 “향상(enhancement)”이라는 계층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이 계층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내가 이를 기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계층의 목표는 하나의 검색문을 다양한 정보자원으로 보내고 이용자가 서로 다른 형태의 검색결과 세트를 이해하도록 하나의 포맷으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유사한 자료의 세트를 생성하거나, 적합성 랭킹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몇 개의 자료를 선택한 후 해당세트 내부에서 “유사(like)” 자료들을 찾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퍼붓고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이용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다룰 도구가 필요하다. 그들은 나중에 참고할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있고, 무엇을 이미 보았고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과거 검색결과와 현재 검색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구상자(toolbox)가 현재 사용되는 개인 서지관리 시스템(personal bibliographic systems)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Vannevar Bush 의 그 유명한 “미믹스(Memex)” 기계<sup>11)</sup>와 같은 체제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서로 연계하고, 기술하고, 주석을 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인적 정보공간, 다만 우리가 그리는 미믹스는 책상만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깔끔하게 우리 손바닥에 들어오는 크기일 것이다.

## 결론

내 결론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 우리는 반드시 공유가능하고 안정적인 서지 레코드를 가져야 한다. 그 레코드 포맷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 어떤 단일 레코드 포맷도 모든 데이터 처리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정보 커뮤니티를 만족시킬 수 없다.
- 동료 사서 여러분, 문제는 레코드 포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시스템 설계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Karen Coyle, 2000



이 글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보호를 받습니다.

---

11) 이는 부시가 1945년 The Atlantic Monthly에 실은 “As We May Think”라는 글에 나오는 원시적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의 이름으로 지식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당시로서는 “상상”의 정보검색시스템이다.

## 맺는 말

코일의 글은 그 내용이 거의 10여 년 지나 이미 해결된 사안을 예측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 내용 중 마지막 그림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지나온 궤적을 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자는 고등학교 때 외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을 참 좋아한다. 원래 뜻은 다르게 배웠지만, 나름대로 “기본을 갖춰야 새로운 것,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동네 테니스 수준을 못 벗어나지만 언젠가는 “심(沈)프라스<sup>12)</sup>”가 되어 보겠다고 헉헉거리며 공을 따라 다니고 혼자 자세 연습을 한다. 종종 도서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는다. 이 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곳 저곳에 숨어있다. 그 중 하나가 Jake이다. 우리의 기본은 이용자 서비스이다. 이를 생각하며 사소한 글, 쉬운 글도 생각하며 읽고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㉞)

12) 오랜 전 한 후배가 혼자서 연습하는 필자를 보고 미국 테니스 선수 샘프라스(Peter Sampras)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별명이다.